

3/27/16

설교 제목: 부활의 증인되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 복음 28:1-15

- (마 28: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 (마 28: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 (마 28: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 (마 28: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 (마 28: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 (마 28: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 (마 28: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 (마 28: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절관주** 시 68:11
- (마 28: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 (마 28: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 (마 28: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절관주** 마 27:65
- (마 28: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 (마 28: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 (마 28: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 (마 28: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초대 교회 교인들이 서로 나눈 인사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여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이렇게 4 대 종교가 있습니다.

이 4 대 종교 중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뿐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죽으면서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교는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만 가르치고 있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슬람교는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죽은 후 다시 살아 났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세계 4 대 종교의 창시자들 예수, 마호메트, 공자. 석가 가운데 무덤이 없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주님같이, 주님을 따라서 죽은 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번 쉬는 날인 일요일에 여기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서 폭 쉬거나 토끼같은 새끼들과 함께 야외에도 나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으면서 보내야지요.

아니면 친구들과 골프치러 가든지요.

어차피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실컷 즐기다 죽어야지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것일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극에 속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전 15: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전 15: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 (마 28: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 (마 28: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 (마 28: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 (마 28: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 (마 28: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 (마 28: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 (마 28: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 (마 28: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 나셨다는 것, 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여 주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하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 (마 28: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런데 달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발을 붙잡은 행위는 왕이나 통치자에 대해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사실은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며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 28: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제자들에 대한 호칭과 만나자고 한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켜 제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면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겁하게도 도망쳤거나 도망치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 서로 말은 안하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는 대신 형제라고 지칭함으로 당신은 너희들을 다 용서하였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신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택해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사역했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 결국 돌아갈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의 추억을 상기시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받았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 시점에서 아직도 유효한지 확신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 아직도 그 사명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음모가 벌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28: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마 28: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마 28: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마 28: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마 28: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상의 끝에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자신들이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 시체 도난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난설이 오히려 분명히 확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지켰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봉인까지 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 후 첫 날 새벽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 계시겠다고 하신 갈릴리로 갔었어야죠.

부활을 믿지 않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꼼짝 못하고 숨어 있던 다락방에 찾아 오셨을 때도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혹시 귀신이 아닌지 의심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드레 후 그런 도마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 오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 하셨고 그제서야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곳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바로 이일의 증인이다(행 20:32)"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라고 담대히 설교합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두려워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3000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받은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우리도 담대히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울 것입니다.

왜 전해야 하느냐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필연코 불과 유황 구덩이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으로 덮여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고 부활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